

과학기술부

제7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개최

과학기술부는 제7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2002년 11월 11일~12일까지 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공동조정위원회는 한국에서는 과학기술부 조청원 원자력국장이, 러시아 측에서는 원자력부의 안드레이 말리세브(Andrey B. Malyshev)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원자력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러 양국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기술 협력, 양국 대학 및 연구소 간 박사과정 교환, 원자력기술 공동워크샵 개최, 원자력학회 및 청년원자력과학자간 교류 등 공동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방사선의 의료분야 이용증진을 위한 방사선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기술개발,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치료법 적용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러 양국은 이번 회의에 이어 지난 10년 동안의 양국간 원자력협력 성과와 향후 추진할 협력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RT : Radiation Technology)등 협력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제1차 한·러 원자력공동 워크샵도 개최(11. 13~14, 원자력연구소)하였다.

원전 및 방사선 이용기관 점검

과학기술부는 선거기간과 연말을 맞아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은 4개 원자력 발전소(고리, 월성, 영광, 울진)와 27개 관련기관 및 시설로,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안전운영 실태 및 운영기술지침서 준수 여부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에는 방사선원(放射線源)관리 실태 및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가 중점으로 점검 되었다.

과학기술부는 12월 중순께 나올 점검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관리 업무개선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발전소 4곳과 병원,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국내 총 1,977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3년, 5년 단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마크 후보신청 공고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과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해 원자력안전마크를 시상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신청을 아래 공고와 같이 접수할 예정이며 원자력 관련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있다.

1. 원자력안전마크 신청분야

[기 관 (부서)]

- 원자력 발전분야

원전건설 · 운영, 주요기기 설계 · 제작, 보수 · 정비, 핵주기, 폐기물관리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이용, 생산, 판매

- 안전연구 및 규제분야

연구용원자로, 안전연구, 규제

[기술 및 제품]

- 원자력 기기 · 장비 · 제품분야

주요기기, 장비, 제품

- 방사선 기기 · 장비 · 제품분야

주요기기, 장비, 제품

- 안전기술분야

안전연구 · 개발, 안전규제기술개발

2. 신청대상

가. 원자력법 제2조 제20호 규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 · 제작 · 건설 · 운영 · 폐기와 관련된 사업자

나. 원자력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 ·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 기관

다. 원자력법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

3. 제출서류

가. 원자력안전마크 신청서 1 부 (디스켓 1벌, 사본 10부 별도제출)

나. 추천서 및 동의서 각 1 부 : 타기관에서 추천서 작성

4. 서류접수마감 : 2002. 12. 14까지 (당일 우편소인 유효)

5.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서류접수 및 안내

한국원자력학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305-353) (Tel. 042-868-8272)